

메시지 7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앎

성경: 렘 2:19, 10:10상, 11:20, 20:12, 애 3:22-25, 5:19

I. 예레미야는 자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불렀다 — 렘 2:19, 5:14, 6:9, 7:21, 9:7, 15, 17, 11:17, 20:12.

A.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며 /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 렘 10:10상.

1. ‘여호와’라는 칭호는 ‘나는 ‘나는 -이다’이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분, 곧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 출 3:14, 계 1:4.

a.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신다 — 출 3:14.

b. ‘나는 -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을 의미한다 — 요 8:24, 28, 58.

2. 여호와는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이다’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 히 11:6.

3.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긍정적인 모든 것과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 — 요 6:35, 8:12, 10:14, 11:25, 14:6.

4. 여호화를 떠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 곧 유일하게 존재의 실재를 가지신 분이시다 — 히 11:6.

B. “의롭게 판단하시고 / 속부분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님!” — 렘 11:20.

1.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 하늘의 모든 군대의 주님, 모든 군대의 대장이심을 가리킨다 — 렘 20:12, 30:8, 48:1, 50:18, 왕상 22:19.

2. 만군의 여호와는 영광의 왕, 곧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군대들의 여호와이시다 — 시 24:8, 10.

3.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4.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영광의 왕은 땅을 소유하시고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차지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지 7 (계속)

- a. 만군의 여호와와는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 시 46:9-10.
 - b. 만군의 여호와와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계시며, 왕들을 제거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권위를 손에 쥐고 계신다 — 단 2:21.
5. 제사장 직분이 빈약하게 되었을 당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이것은 그분의 행정이 것처럼 빈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분께서 나오셔서 상황 전체를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왕국의 다스림을 이끌어 오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 삼상 1:3.

II.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 애 5:19.

- A.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관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그분의 변함없는 통치를 언급한다.
- B.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우주의 주님이신 여호와와는 여전히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신다.
- C.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그분 안에는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애 5:19.
 - 1. 하나님은 불변의 상태로 계시며, 어떤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신다 — 시 90:2, 롬 16:25-26.
 - 2. 사람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에는 변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 그분은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계신다.
 - 3.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 창 21:33.
 - a. 영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다. ‘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올람’은 ‘영원한’ 혹은 ‘영원’이라는 뜻이며,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 b. 신성한 칭호인 ‘엘 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함축한다 — 비고 요 1:1, 4.
 - c. 아브라함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므로써 항상 살아 계시고 은밀하시며 비밀하신 하나님, 곧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체험하였다.
- D.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변함없는 통치를 가리킨다 — 애 5:19, 시 45:6, 93:2, 계 4:2-3.
 - 1. 하나님의 보좌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분의 보좌는 대대로 존재한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7 (계속)

2.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애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변함없는 통치에 관해 쓴 것은 확실히 신성한 것이다.
 - a.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그분의 보좌에 관해 한 말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애가를 쓸 때 하나님의 경륜을 접촉했다는 강한 표시이다.
 - b.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느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보좌를 만졌으며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갔다.
- E.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위격 안에서 그리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인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 히 12:28, 계 22:3.

III. “여호와와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 애 3:22-23.

- A. 여호와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자애로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셨다 — 렘 31:3.
 1. 여호와와 자애는 보배롭고 영원하며 하늘들보다 높고, 하나님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이끌어 온다 — 시 36:7, 9-10, 108:4, 118:1-4, 22-29, 136:1, 26.
 2. 시편 103편은 자애와 자비로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구속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
 3. 시편 작가는 여호와께 “저는 주님의 풍성한 자애를 힘입어 / 주님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 시 5:7.
 - a.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애 아래 있어야 했다.
 - b. 사실상,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애를 누리는 것이었다.
 - c. 여호와와 성전 가운데서 여호와와 자애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의 자애를 접촉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시편 101편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자애와 정의로 땅을 다스리실지를 밝혀 준다.
- B.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보존되었다 — 애 3:22-23.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메시지 7 (계속)

1. 자비는 긍휼보다 더 깊고 더 섬세하며 더 풍성하다 — 롬 9:15, 시 103:8.
 2.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로부터 기원한 하나님의 내적인 애정을 가리킨다 — 고후 1:3, 약 5:11, 눅 6:36.
 3.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 때문이다 — 눅 1:78.
 4. 여호와와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 애 3:23.
 - a.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상반절은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주님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접촉했음을 보여 준다.
 - b. 그는 주님과와의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와 신실에 대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
- C.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라고 말하였다 — 애 3:23하.
1.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 — 시 57:10.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다. 곧 그분의 본성과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다 — 딤후 2:13.
 3.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셨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 고전 1:9.
 4.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이다 — 살전 5:23-24.

IV. “ ‘여호와와는 나의 몫 /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 애 3:24.

- A. 여호와께서 우리의 몫이신 것과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에 관해 예레미야가 한 말은 신약의 맛을 지니고 있다 — 골 1:12, 27.
1.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그의 몫으로 누렸고, 그의 소망을 자기 자신이나 그 외의 다른 어떤 것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두었다 — 애 3:24.
 - a. 한 면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애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b. 또 한 면으로 예레미야는 우리가 여전히 아침마다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애 3:23-25, 55.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7 (계속)

2. 시편 작가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신성한 관점과 인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몫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 시 73:17, 26.
 - a.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편 작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떠나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그의 몫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 시 73:26.
 - b.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 B.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 그분을 찾는 혼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 — 애 3:25.
 1.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 계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 종종 그분의 말씀을 더디 이루신다 — 시 27:14, 130:6, 사 8:17, 30:18, 64:4.
 2.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활동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대치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 사 40:28, 31.
 - a.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 — 사 30:18.
 - b. 오늘날은 궁극적인 완결의 때가 아니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야 한다 — 사 64:4.
 3.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한다.
 - a.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 렘 29:13.
 - b.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일들을 알려 주겠다.” — 렘 33:3.